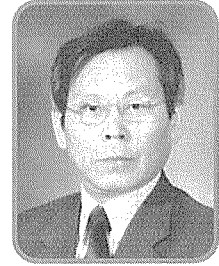


도서관은 독서 활동의 장이다.



이만수*

21세기를 지식사회라고 한다. 지식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 중의 하나가 정보이다. 우리에게도 정보가 필요하다. 사서에게도, 이용자에게도, 누구나 정보가 필요하다. 필요한 정보는 자료 즉 도서관 자료 속에 들어 있다. 도서관이 바로 이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축적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다.

우리는 자료 속에 들어 있는 정보를 독서를 통하여 찾아낸다. 하루라도 독서하지 않으면 입 안에 가시가 돋는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독서하지 않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다.

“읽으면 행복합니다.” 참으로 정다운 말이다. “책든 손 귀하고 읽는 눈 빛난다.” “물음표로 책을 펴고 느낌표로 책을 덮자.” 우리들에게 독서하는 모습과 독서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말이다.

오늘날 우리의 교육목표는 21세기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계화·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자기 주도적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자기주도적 학습(Do-It-Yourself Learning)이다. 도서관은 학습자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조직하는 학습자료에 의한 자기 주도적 학습의 장이다. 21세기 교육은 ① 알기 위한 학습(Learning to Know), ② 행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do), ③ 존재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be), ④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학습(Learning to live together)이 중요하다. 바로 도서관보조학습(LAI/Library Assisted Instruction)이 이러한 교육을 내실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자기주도 학습은 독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독서는 중요하다. 빌 게이츠는 “오늘날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었다.”라고 하였다. 어릴 때부터 자기 마을 도서관을 이용하며 꿈을 키웠고, 독서를 통해서 얻은 아이디어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창업하고,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된 것이다. 그는 하루에 1시간 이상 책을 읽었다고 한다.

* 대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독서문화연구소장, mslee@daejin.ac.kr

한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인,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전문가, 안철수 박사도 어렸을 때부터 독서광으로, 도서관에서 읽은 책을 통하여 꿈을 키웠다. 국내에서 제일가는 기업의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은 해마다 정초에 일본에 가서 기업경영과 하이테크(고도 기술)에 관한 책을 사서 읽고, 이른 바 동경 구상을 하였다. 오늘날 그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은 바로 이병철 회장의 독서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한다.

독서하면 상식과 교양이 풍부해지고, 독해 능력도 뛰어나게 되고, 공부도 잘 하게 된다. 독서하면 행복하다.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지도록, 행복지수가 높아지도록 독서교육을 해야 한다. 베이컨은 “토론은 부드러운 사람을 만들고, 글쓰기는 정확한 사람을 만들며, 독서는 완전한 사람을 만든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독서는 중요하다.

미국에서의 독서교육은 가정과 긴밀한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과제를 해결하려면 공공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와야 한다. 또한 책을 읽을 수 있기 이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잠자리에서 책을 읽어주고,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아이들과 공공도서관에 같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 공공도서관에서는 여름방학 동안에 독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940년부터 실시해 온 Vacation Reading Club(VRC)이라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독서프로그램이 있다. 오늘날에는 SRP(Summer Reading Program)이란 독서활동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서도 다양한 독서활동을 하고 있다. 독서회, 여름·겨울 독서교실, 다독자 표창, 독서퀴즈, 독서감상문 쓰기, 동화구연, 작가와의 대화, 스토리텔링, 논술, 독서클리닉 등이다.

도서관은 독서활동의 장(reading center)이다. 자료제공의 장(material center)이다. 정보제공의 장(information center)이다. 레크리에이션의 장(recreation center)이다.

도서관은 지역사회 정보문화 사랑방이다. 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정보문화센터이다.

우리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다. 독서활동의 주체는 도서관이다. 9월은 독서의 달이다. 책을 가까이 하자. 책을 읽자. 그리고 도서관에 가자. 도서관은 독서의 장이다. 